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는 세상 어둠 밝히니

환희와 축복으로 오신 부처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보통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자식들 돌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쁜 일상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은 감로수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의에 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아상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빈자의 등불로 거친 비바람을 이기는 힘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강탄을 봉축 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힙시다

불교총지종 총무원장 범등 정사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 있는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무신 참으로 뜻 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불성과 자리아타의 등불을 밝히도록 합시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불성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모두 한마음 한 뜻되는 기회로

(사)대한불교원용종 종정 일공 스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주의 주인이요, 삼계의 스승이며, 사생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무리를 이끄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땅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인류에게 축복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붓다는 우리 인간계에 태어나셔서 천상천하(天天下)에 가장 거룩한 대도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인간은 이지의 탐조력과 이성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누구나 다, 붓다가 된다는 인간성불(人間成佛)의 비법(秘法)을 얻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굳게 뭉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정 계율 지키면 자유로와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 고요한 생각으로 부처님 순리를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읽고 따르면 언제나 자유롭고 행복하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극락천국에 살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부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고통에서 헤매는 것이다. 부처님 진리에 순응하는 자는 복덕이 따르고 행복하고 부처님 진리에 역행하는 자는 불행이 따른다. 부처님 오신 날을 새기는 것은 성불을 바라는 것이며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웃 고통 어루만지는 봉축되길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길 잃고 헤매는 중생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심신(心神)까지도 그 무량한 대비의 물로 적셔서 시들지 않도록 하기를 염원하며 살아온 중생들에게 새 인간으로 맞아 주시고자 저희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축복의 등, 지혜의 등을 밝히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향을 쬐 풍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낚 새끼는 비린내가 난다. 심성(心性) 또한 부딪치는 경계에 따라 변해지니 또한 재반사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기도. 피할 수 없는 고통도 내가 있어 부딪히네. 모든 것들은 내 탓이로다 마음달래며 마음깊이 부처를 앉고 있다면 미음도 원망도 두려움도 살리지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어도 환자가 의심하여 먹지 않으면 병 고치기 어려운 법.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든 가족과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화합과 단결 위에 밝은 법이

(재)대한불교일명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화합과 단결 위에 밝은 법이 나오고, 밝은 법에서 제도가 살아 있어야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안정되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즐거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먼저 깨달아 진리의 본 성품과 청정한 심성으로 돌아가 옛 조사 스님들의 뜻을 뿌리로 삼고 부끄럼 없는 삶 속에서 열심히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큰 빛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빕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성찰합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 오신 날, 참회의 마음으로 모두가 성찰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에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리아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서로 다투며 탐욕과 분노만으로 부질없는 망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맞아,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 부처님을 찬탄하고 섬기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삼세여래도불회(三世如來都不會) 역대조사출몰득(歷代祖師出不得) 우우눌늘주인공(愚愚訥訥主人公) 도행역이무궤칙(倒行逆施無軌則) 삭파팔만사천문(삭破八萬四千門) 나변운외청산벽(那邊雲外靑山碧)

삼세의 여래도 알지 못하고 역대의 조사도 나오지 못하네. 우둔하고 어눌한 주인공이여 뒤죽박죽 행실로 아무 법도가 없네. 팔만사천법문을 다 녹이고 깨트리니 저쪽 구름 바깥에 청산이 푸르구나.

부처님은 오고감 없어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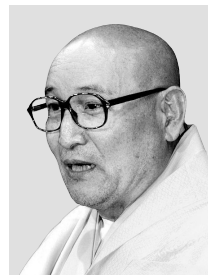


나(佛)는 항상 이곳에 있어 갖가지 신통력을 보이나 중생들이 어리석어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我常住於此 以諸神通力 令顛倒衆生 雖近而不見

묘법연화경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오신바 없고 가신바 없습니다. 룸비니동산의 부처님 탄생은 오늘날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명실당실 추추고도 남을 경사입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모두가 지혜와 복덕을 쌓아갑시다.

축원하는 마음으로 성불하소서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부끄러움으로써 의복을 삼았기에 세속 옷은 먼지와 때만 더하니 법의(法衣)야말로 참된 분의 옷이며 마음을 쉬었기에 어려우 부끄러라.

법의 맛의 도의 음식이 되나니 굶주림은 이제 이미 없었거니와 세상을 가없이 여겨 집집 걸식하면서 발우를 가지고 중생들을 복되게 함이요. <이합결 원자부국품> 석가탄신을 축원하는 마음 정신으로 성불하소서!

가고 오고 없는 부처님오신 날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희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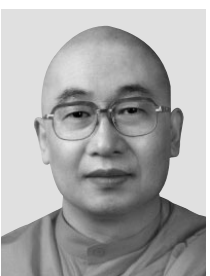
봉축 일을 맞이하여 우리종단을 비롯하여 종도들, 특히 불자님과 더불어 경하(慶賀)합니다.

춘유백화추유월(春有百花秋有月) 하유량풍동유설(夏有涼風冬有雪) 약무한사괘심두(若無閑事掛心頭) 변시인간호시절(便是人間好時節)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엔 달빛이 좋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네.

남녀노소 차별 없는 평등 오길

세계승가회 회장 아신 수완나 스님



거룩한 여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세계의 인연 있는 불자들은 가장 존귀한 중도를 실천하는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본래(本來)로 사법평등(是法平等) 무유고하(無有高下)라. 일체 제법에는 높낮이가 없이 평등한 법인데 오늘날 불평등의 분별취사가 일어났음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는 아만(我慢)이 높아지고 중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도란 모든 상(相)을 떠난 자리이니 이것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있음으로 정진하여 차별 없는 평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바다 뛰어들어 정진하세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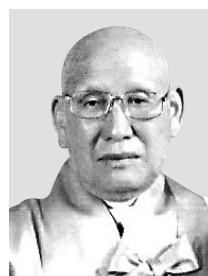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공(汪洋覺海妙難窮)

부처님 몸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니 삼세 여래가 한 몸이다. 넓고 크신 원력구름 항상 다함이 없으니 넓고 먼 깨달음의 바다 헤아리기 어려워라.

우리들도 다함없는 원운(願雲)을 내어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해 부처를 꼭 이룹시다.

부처님 나투시니 삼천대천 진동해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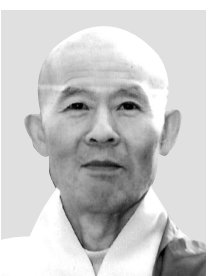
降王宮示本然 周行七步又重宣 指天指地無人會 獨振雷音遍大千

룸비니 동산에 본 모습을 나투시어 사방칠보 걸으시고 가운데 우뚝 서니 한 손은 하늘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시니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도다.

고통 받는 이웃도, 어둠속의 중생들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에서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는 불제자가 됩시다.

공존공생의 삶 되도록 행합시다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사바세계가 진정 삼덕 암흑이라, 오색 광명 비추며 진리의 광명으로 나투시기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아파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기다립니다.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되새겨 지금의 나를 반성하고 이 어두운 중생사회가 밝아지도록 하는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탐진치로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나를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나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내 안의 본래 청정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진면목 바로봐 고통서 벗어나세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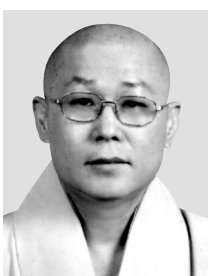


무명을 밝히고자 지혜의 등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의지해 이 어두운 현실을 밝혀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래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가 이름만 다를 뿐, 모두가 분별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실한가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데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자성의 진면목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자각 합시다

한국불교원용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태어날 때는 무명의 업식으로 태어나지만 부처의 근본 종지는 누구나 그대로 여여 하여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법신의 기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 있어서는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법신은 은연하여 오고감이 없이 온 누리의 광명이요, 언제나 본체의 대기대용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이름 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가 다만 이름일 뿐이며 차별된 이름과 모습과 선악은 모두가 분별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두 부처입니다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권한 대행 겸 총무원장 법산 스님



제법종법래(諸法從本來)하여 상자적멸상(常寂滅相)이요 불자행도이(佛子行道已)하면 내세득자불(來世得作佛)이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고요하여,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싫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 같은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우리 모두 부처이며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성불합시다!

봉축은 모두의 기쁨입니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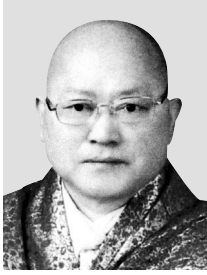
인류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지혜의 등불과 자비의 원력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뜻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였으니 우리 모두의 생신이요 기쁨입니다.

마음의 등불 밝혀 다함께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뜻 받들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온 세상이 평화로워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극락정토를 실현합시다. 부처님 오신 날을 심축 드리며 불자님 가정과 하시는 일 마다 부처님의 자우가 편조하시길 합장 축원 드립니다.

정진의 등불을 켜고 이웃에게 한발짝 다가섭시다

부처님 자비의 눈물 흘리소서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청해 스님



부처님 부처님 온 세상 부처님
세상사람 모두가 나 그런 듯 아니지만
나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못된 자
이제는 정말 별하실 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쌍하고 애처로운 어린 꽃들이
무참히 희생되어 갔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 잘 알지만
오늘만은 자비의 눈물로 통곡하소서.
팍 흘려 고생하시며 구조에 여념이
없는 분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탄생을 찬탄합니다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의륜 스님



佛誕日
年年佛前 好好年
月月佛前 好好月
日日佛前 好好日
佛子喜日 佛誕頌
부처님 오신날에
부처님 앞이라면 해마다 좋은 해이고
부처님 앞이라면 달달이 좋은 달이며
부처님 앞이라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기쁜 날 불제자는 부처님 탄생을 찬탄한다.

말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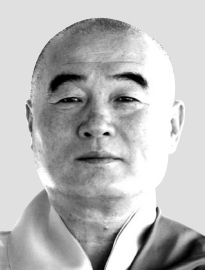


설자하물(說者何物)
청자하물(聽者何物)
불결블래처(不去來處)
세인모의(世人莫疑)
육진환화(六塵幻花)
말하는 자는 무엇이며 듣는 자는 무엇
인가. 가고 옴이 없는 곳에 세인은 의심치 말지어니, 육진이 환
영의 꽃인 것을.

우리들은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보배를 찾지 못하고 바깥
에서 찾고 있습니다. 육진이 환영의 꽃인 것을 바로알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읍시다.

심외무불의 도리를 깨쳐야

(사)전국사설사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우리 모두 일체가 만약 지금 여래성을
품었음은 여래가 내 몸에 있으리다. 내
마음이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이제 내가
참 부처라 견성하는 찰라가 바로 참 부처
일 것이다.
나와 여래가 차별이 없음은 여래가 즉 나의 진여이리니 진여
자성은 참 부처요, 사견삼독은 마왕이니 사되고 미망할 때는 마
왕이 사는 것이요, 제 마음을 보아서 참됨이 있으면 그것이 부처
가 계심이라. 한 생각 생기기 않으면 처처에 부처 아님이 없고,
말 한 마디가 통하지만 일일이 불공 아님이 없네.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삼라만상은 바다의 물거품이요, 허공
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것. 그러니 마왕
의 소굴은 물론이고, 불전마저 무너뜨려
치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탐·진·
치' 삼독심에 물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우
리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중생구제
라는 큰 뜻을 품고, 대자대비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
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구하여 자기 스스로 수고로이 얻은
것이라도 남에게도 주고 자기도 쓰며 또한 널리 베풀어 복을 짓
는 공덕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생활
하는 일에 나섭시다. 세상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꿈같은 인생살이에서 깨어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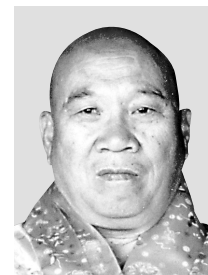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먼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
족 및 희생자와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기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행무상(諸行
無常)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생은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꿈같은 것이요, 이러한 꿈같은 인생살이에서
깨어나야 큰 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는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가까이 있는 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45년간을 설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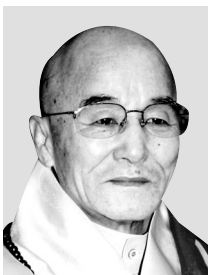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사람 세상 한바탕 꿈이 깨지니
이제금 어디에서 묘용을 이룰 것인가
아아, 비통하도다.
젊은 청춘의 꽃들이여
차가운 맹골에 묻혀 버렸구나.
활활 타는 불은 불을 가지고
온전히 삶과 죽음을 태워 없애 버리고
내생에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라
할

중생에 회향하는 참불자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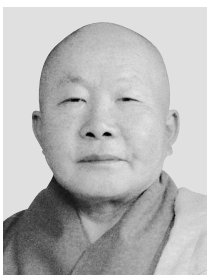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부처님은 자비의 등불이시며 지혜의
등불이시며 또한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부처는 자비의 마음속에 태어납니다. 우
리도 부처님처럼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
의 무명과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등을 밝혀 각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반성하고 정진하여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
다. 부처님오신 날의 참뜻을 헤아려 고통 받는 이웃에게 대자대
비한 마음을 발하여 부처님의 법을 나누고 복을 지어 모든 중생
에게 회향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타실천행을 펼칩시다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부처님오신날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온 사회가 비통한
이 때,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
비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
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순간도 마음
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탐진치 삼독을 떨
쳐버리고 무연대자의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살피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
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로 사회의 아픔이 치유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어둠이 어서 빨리 물러나기를 다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비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
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염원하는 대자대비 원력이셨습니다. 부
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
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부처이며 내 가족, 내 이웃 모
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밖에서만 찾다보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남을 위해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원리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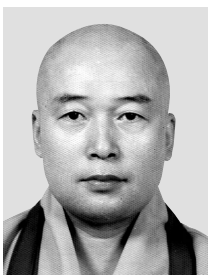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삶과 죽음을 것이다. 즉, 생사
(生死) 문제야말로 그 무엇보다 앞선 궁극
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 기필코 풀어
야 할 중심문제이다. 인간의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
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어디든 찾아보
라, 마음이 나온(生) 곳이 있는지, 따라서 나온 것이 없으므로 죽
는 곳도 없다.

분별 시비 놓고 마음에 귀의하자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각성 스님



모든 행 허깨비임을 요달해 아니
법이 오직 마음임을 보매
마음도 절로 한가하다.
갖 없는 성품의 허공 지혜 달 가득해
다툼도 미움도 없이 우리 모두
삼천대천 번뇌를 태우자
어리석은 듯 선(善)도 닦지 말고 드높은 듯이 악(惡)도 짓지 말며
적절히 하여 보고 들을 없이하고 탕탕히 하여 마음 걸림 없이 예
나 이제나 천지가 한 웃음 우리 모두 태평가를 노래하자.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생이라 죽음이라 하니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 바로 위대한
사상의 가르침,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공경
하고 일찍이 전하는 마음뿐이로써, 물질
이 풍요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밝음을 맞아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대 자유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 세월호 침
몰사고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유가족들께도 부처님의 자비광
명을 고루내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비 지혜를 구족하는 봉축되길

대한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 종도와 함께
반들어 봉축합니다.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 이웃을 위해 자비
의 마음을 함께 합시다.
마음에 형식을 두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구보리 하
화중생으로 자연의 이치로 수행하며 정진합니다. 부처님은 오
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불생불
멸의 인과법을 알아 눈앞의 현실에 이따가 죄업을 짓고 고통 받
는 중생들을 위해 일심참회로 정진합니다.

세월호 어린 영혼의 범향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생사욕탈(生死欲脫)이면
탐욕선단(貪欲先斷)하며
급제애갈(及諸愛渴)이나
진여악성(震如惡聲)이니
소령귀환(小靈歸魂)이라
생사를 시원히 벗어나려면 탐욕을 먼저 끊어야 하며 사랑에
목매임도 벗어나야 비록 치는 그 소리 그 귀에 들려서 어린 영혼
들 다시 돌아오기를... 祈願

지계 청정하라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일정 스님



진리를 얻고자 할진대 가장 먼저 갖춰
야 함이 지계함이니, 이는 출가대중이든
재가대중이든 모두가 갖춰야 할 수행덕
목입니다.
무명을 벗어나는 지름길은 무명의 자리를 확연히 깨닫고 또
다시 업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청정함을 유지하여 정진
함이 으뜸이니, 부처님오신 날에 사부대중의 결계가 분명 있어
야 할 것입니다. 모두 각처에서 각각에게 맞는 훌륭한 안목으로
계율을 잘 갖추어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 갖고 노력합시다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부처님 오신날 이 좋은 날에 마냥 기쁘
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불탄일
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희망' 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
다. 우리 불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불하
신 부처님 심법을 따라 무명을 벗어나 대
광명을 찾는 여래심법을 실천하여야 하겠습니까. 작금의 아픈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을 새로이 계획하며 내내와 절
제로 현실을 이겨내고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호로써 앞
날의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이루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전에서 누구를 닮아 이 전에 진정으로
'나' 를 돌아보고 참회합시다.

업장 참회하고 자비 등불 밝히길

(사)대한불교공공조계종 종정
범운 스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누리의
거룩한 빛이요, 아득한 세월동안 업에 저
리고 탐·진·치 삼독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의 심성에 부처님의 광대무
변한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혀 깊은 업장을 참회하고, 이 땅에 밝
고 어둠이 없는 평화의 등불을 밝힙시다.
너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
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행복이 깃들도록 정진합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이사장
경보 스님



한 방울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
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다시 수증기로 변
하여 구름, 비, 눈 이루며 또다시 바다로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와 인과법
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바세계는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큰 복을 누릴 수 있
더라도 인내하고, 여러 일로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
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접근은 더욱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거울로 삼고 정진한다면 계, 정, 혜가 밝
아져 고에서 벗어나고 청정한 마음이 들어날 것입니다.

본래 진면목 찾기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송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사람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
관적 종자를 소멸해야 합니다. 즉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녹여야 하고, 탐심이 있으
면 탐심에 대응해야하며, 치승이 있으면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중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공부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리와 심리에 통달해야만 몸과 마
음이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의 일체 속에서 도(道)와 상응 할 수 있
습니다. 즉 안에서 찾는 것이요, 온갖 것을 밖에서만 찾다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